

# 이스라엘·PLO간 화해의 배경과 국제석유시장



홍성민

<중동·아프리카연구원 연구실장>

## 1. 이스라엘, PLO 간 화해의 근본배경

지난 9월 13일 워싱턴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마흐무드 압바스 PLO 정치고문이 [중동평화협정], 즉 팔레스타인 1단계 자치안에 조인함으로써 이스라엘, PLO간의 45년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자치안의 골자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시에 강점한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에 향후 5년간 잠정적인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의 자치실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보건, 교육, 복지, 관광

및 문화 등 5개 행정분야에서만 자치권을 가지며 역내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지역에 관한 외교 및 국방권을 계속 행사하게 돼 있어 아직도 넘어야 할 난제가 너무 많다. 주변 아랍국들, 특히 이라크, 리비아의 반발과 PLO 내부의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을 포함한 강경파들의 반발, 그리고 주변국 이란의 반발과 이스라엘 내부의 반라빈파의 반발 등은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등 「세 종교의 수도, 예루살렘」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염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팔레스타인지역은 예로부터 동서문명이 교차하는 해상교역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곳의 아랍인들은 다른 지역의 아랍인들보다 교육수준이나 정치의식도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로, 현재 약 5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가운데 12%는 이스라엘에, 30%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역에, 나머지 58%는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등 인접 아랍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964년 결성된 PLO를 중심으로 오직 독립국가의 실현을 기다리며 서글픈 방랑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에서 PLO가 이라크를 지지함으로써 PLO는 매우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재정적인 후원국들이었던 GCC국가들로부터의 원조 중단은 PLO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다. 한편 면적 2만 평방Km에 인구 500만명인 작은 나

라 이스라엘도 국가예산의 20%가 넘는 연간 약 70억불의 국방비지출이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항상 시달려온 이스라엘도 냉전종식과 걸프전으로 조성된 화해무드에 편승하여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지역에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경우, 이스라엘은 『아랍산유국의 오일 달러와 아랍시장에의 진출과 그들이 보유한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중동 산유국과의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다.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이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로 치달자 이미 10여년전부터 이곳에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구상되고 있었고, 「대수로계획」(Waterway Project :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등의 국가를 포함)도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스라엘의 1991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000달러이지만,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역은 1,700달러, 가자지

<표-1>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의 경제지표

|                          |       | 이스라엘                 | 레바논                            | 시리아                           | 요르단      | 이집트      |
|--------------------------|-------|----------------------|--------------------------------|-------------------------------|----------|----------|
| 인                        | 구(천명) | 4,544                | 3,432                          | 13,459                        | 3,556    | 55,704   |
| 산업                       | 농업    | 5                    | 8                              | 27                            | 7        | 21       |
|                          | 공업    | 28                   | 21                             | 19                            | 28       | 30       |
|                          | 서비스   | 67                   | 71                             | 54                            | 65       | 49       |
| GNP 성장률(%)               |       | 3.2                  | 1.4                            | 0.4                           | 2.3      | 5.6      |
| 1인당 GNP(\$)              |       | 10,498               | 553                            | 967                           | 1,622    | 666      |
| GNP중 국방비율                |       | 16.6                 | 8.2                            | 11.9                          | 13.9     | 9.2      |
| 무역수지(백만\$) <sup>1)</sup> |       | -2,890               | -255                           | 991                           | -773     | -7,664   |
| 도시화율(%)                  |       | 90.0                 | 80                             | 50                            | 70       | 45       |
| 언                        | 어     | 히랍어(69%)<br>아랍어(18%) | 아랍어(93%)<br>아르메니아<br>(6%)      | 아랍어(88%)<br>쿠르드(6%)           | 아랍어(98%) | 아랍어(99%) |
| 종                        | 교     | 유대교(83%)<br>이슬람(13%) | 쉬아(32%)<br>마론파(24%)<br>순니(21%) | 순니(74%)<br>기타(16%)<br>기독교(9%) | 순니(93%)  | 순니(48%)  |
| 문맹율                      |       | 92%                  | 80%                            | 64%                           | 80%      | 48%      |

주1) 무역수지는 이스라엘(1990), 레바논(1987), 기타 국가는 1989년 자료.

<자료> 1992. PC GLOBE, INC. TEMPE. AZ. USA에서 작성

역은 850달러에 달해 극심한 경제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7년~1990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의 GDP는 연평균 11.4%나 감소하였고, 가자 지역은 연평균 17%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NP도 13%씩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지역에서 실업자들을 과격파 PLO세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평화협정체결로 시리아를 포함하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의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현실화와 이들 공동시장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자유무역시대]의 구상이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PLO는 서방의 지원하에 이스라엘 수준으로의 지역 경제권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의 주요경제지표는 <표-1>과 같다.

이스라엘, PLO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경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는 ①동력망 ②운하 ③항구 ④관광지구 ⑤고속도로 ⑥지역 기상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PLO는 이미 공동경제위원회의 창설을 합의하여 서방과 아랍국가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PLO간에 상호개방무역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들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16억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연간 약 5억에서 5억 5천달러의 지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만일 미국의 강력한 후원하에 주변아랍국가들

과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원조가 이루어진다면, 중동의 평화정착은 한발짝 앞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적 변화가 보조를 함께 맞추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된 평화회담은 「경제적 실리를 바탕에 깔고 정치적 대의명분」을 추구한 합의라 볼 수 있다.

## 2. 3극체제(Tripolar System)의 강화와 충돌

걸프전(The Gulf War)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동서양극체제의 화해」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1970년대 일본의 부상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NICs)의 등장 및 EC의 급성장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력 약화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역주의(Regionalism)경향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 소련의 경제력 약화는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군사대국 미국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면서, 경제력 위주의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던 시기에 동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중동지역에서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함으로써 그 물결의 흐름은 더욱 빨라졌다. 나토(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가 유럽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 「힘의 공백」을 메울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1991년 2월 걸프전이 발발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중동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 약화는 이 지역의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던 유럽국가들, 즉 EC국가들을 불러모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도 이곳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

다. 따라서 걸프전 이후, 중동의 경제질서는 미국과 GCC아랍국가들의 주도하에 재편될 것이라는 일반론을 뒤엎고 경제블럭(Economic Bloc)의 강화 현상만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 결과-미국, EC 및 일본-이라는 세 경제대국이 출현함으로써, 세계는 「양극체제에서 3극체제(Tripolar system)」으로 다극화되고 있다. 3극체제가 과거의 경제질서와 다른 점은 이들 3극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 경제블럭, 즉 NAFTA, EC 및 아시아 경제블럭(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본의 경제력 혼자서 이를 떠받치고 있는 실정임)으로 부터 나온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한편 이번 평화협정조인으로 이라크의 정치, 경제적 지위는 매우 약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걸프전에서 참패한 이라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근원도 아랍통합의 대전제하에 對이스라엘 투쟁에서 아랍국가들의 선봉장 노릇을 하였기 때문이다. 1978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대변해줄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러한 구도가 걸프전에서 요르단, 예멘 및 PLO 등의 국가가 이라크의 지지자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PLO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주변 GCC아랍국가들로부터 원조증단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동분쟁의 핵'인 PLO가 분쟁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직접 화해에 나섰기에, 이집트와 이라크가 아랍통합의 대전제를 앞세우며 아랍의 대변자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3. 중동 경제질서의 새로운 양상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고임금의 매력

으로 대규모의 노동자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非아랍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의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나, 주택, 식량, 운송 및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이 지역에 남기를 원하기에 경제체제의 유지에 커다란 압력요인으로 작용(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GCC국가에서 非아랍국가들의 대외 경제협력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걸프전의 여파로 GCC산유국들의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非아랍 산유국에 대한 원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경제지원은 이해를 같이 하는 경제블럭(Economic Bloc) 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번 이스라엘, PLO간 화해로 또다른 경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동의 아랍국가들간에는 비록 정치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1981년 결성된 걸프협력위원회(GCC), 1989년 결성된 아랍협력위원회(ACC) 및 동년 같은 시기에 결성된 아랍마그레브연합(AMU) 등 3개의 경제블럭이 있으며, 걸프전 당시 ACC국가인 요르단과 예멘이 이라크를 지지하였고, ACC국가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집트가 유일하게 다국적군의 편에 섰다. 그리고 AMU국가에서는 리비아가 이라크를 지원하였고, 非아랍국가이면서 숙적관계에 있던 이란이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중동국가들은 양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걸프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만일 GCC아랍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국적군을 중심으로 중동질서의 재편을 서두를 경우 이라크, 리비아, 이란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아랍통합 문제를 등에 업고 주변 아랍국가들을 자극할 것이기에 또 다른 우환을 불러올 수 있었다. 더욱이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 3개국은 OPEC내에서도 高유가를 주창하는 강경파국가들이기에 담합도 가능하며, 소련을 등에 업고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었기에 중동질서의 재편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동분쟁의 핵인 팔레스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라크로부터 등을 돌렸기에, 과거 이라크의 편이었던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화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예멘도 사우디와 주변 GCC아랍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라크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는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위는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이라크도 걸프전 이후 경제제재조치에 시달려 오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에, 전후 복구문제를 포함한 경제건설문제 등으로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정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해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회담이 이루어지자 중동지역에서는 터어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의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반해 이라크, 리비아, 이란, 수단, 튀니시아, 알제리아 등 강경국들은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만일 PLO와 이스라엘에서 각기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과 같은 주변국가들의 반발이 심해진다면, 중동은 또다시 양분화되어 핵분열화될 가능성도 높다.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주변 아랍국가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독립국가 건설」이기에 중동평화의 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었을 뿐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

은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동의 경제블럭은 현재 GCC, ACC, AMU로 이루어져 있는 아랍의 경제블럭이 1964년 터어키, 이란, 파키스탄간에 이루어진 RCD를 모체로 1985년 구소련의 이슬람공화국들을 끌어들여 재결합한 非아랍경제블럭인 ECO와 함께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 같다.

#### 4.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13일 이스라엘과 PLO가 「팔레스타인 자치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의 여파가 국제석유시장에도 차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 3월 이후 배럴당 20달러이상의 유가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배럴당 17달러이하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회담 진척은 가격하락의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난 1986년 이후 커다란 가격하락현상이 없었기에 성급한 분석가들은 배럴당 10달러 선으로의 가격하락도 예측하고 있다. 북해유전의 생산력 증가와 완만한 수요가 석유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UAE, 나이지리아와 현금부족국들에 의한 생산감축이 OPEC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OPEC는 지난 6월에 회원국간에 합의한 일량 2,350만 배럴을 초과하여 일량 100만 배럴이상의 초과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1992~1993년도 세계의 원유수급현황은 <표-2>와 같다.

한편 중동에서 갑작스러운 평화회담의 진척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OPEC의 기대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금년 여름 배럴당 18달러에 선적한 원유가 세계 석유수요 감축에 관한 보고와 함께 지난 8월 이스라엘과 PLO간에 회담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이 차츰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표-2>

세계의 원유수급현황

(단위 : 백만 b/d)

|                    | 1992년 |       |       |       | 1993년 |       |       |      | 연 평균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992년 | 1993년 |
| 세계 수요              | 69.0  | 65.6  | 65.8  | 68.0  | 68.3  | 66.0  | 66.4  | 69.2 | 67.1  | 67.5  |
| 세계 공급              | 67.4  | 66.2  | 66.8  | 67.9  | 67.6  |       |       |      | 67.1  |       |
| OPEC (NGL)         | 43.6  | 42.8  | 42.6  | 42.9  | 42.6  | 42.1  | 42.2  | 42.8 | 40.8  | 42.4  |
| O P E C            | 23.8  | 23.4  | 24.2  | 25.0  | 25.0  |       |       |      | 24.1  |       |
| OPEC 쿼타            | 23.65 | 22.98 | 22.98 | 24.58 | 24.58 | 23.58 | 23.74 |      |       |       |
| 재고 변동              | -1.6  | 0.6   | 1.0   | -0.1  | -0.7  |       |       |      | 0.0   |       |
| 유가 (Dubai)         | 15.54 | 17.75 | 18.27 | 17.19 | 15.84 | 16.10 |       |      | 17.18 |       |
| OPEC 옥상재고<br>(백만톤) | 454   | 460   | 466   | 464   | 460   |       |       |      |       |       |
| 지속일수               | 97    | 95    | 94    | 93    | 97    |       |       |      |       |       |

주1) : 1993년 2/4분기는 5월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3. [석유]. 6월호. 114쪽

따라 석유전문가들은 『평화회담이 진척되면 될수록, 유가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OPEC는 9월 25일 제네바 회담에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장관인 알리오 빠라 (Alirio Parra)는 2/4분기에 하루 2,450만 배럴으로의 생산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걸프전으로 고갈된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만이 「안정효과」 (Steady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OPEC가 가격혼란현상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만일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로 하락하면, OPEC 회원국들은 연간 800억 달러의 손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요즈음 사우디아와 이란간의 불신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기 에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과거

「OPEC는 석유시장이 가장 혼란된 시기에 최선을 다해왔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OPEC가 유가안정을 달성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뭏든 이번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회담 진척은 국제석유시장에서 가격하락의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중동내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알제리 등 강경국들이 담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 유가의 단기적인 상승현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평화회담이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하락을 유도할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OPEC와 소비국들은 그 갭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나는 학용품절약, 엄마는 에너지절약